

## 사구체 질환에서 Mycophenolate mofetil 치료의 유용성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한승엽 · 박우영 · 장미현 · 김정은 · 윤정수 · 진규복 · 황은아 · 박성배 · 김현철

### Efficacy of Mycophenolate Mofetil Treatment in Primary Glomerular Disease

Seung Yeup Han, Woo Young Park, Mi Hyun Chang, Jung Eun Kim  
Jeong Soo Yoon, Kyu Bok Jin, Eun Ah Hwang, Sung Bae Park, Hyun Chul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목적** : 사구체 질환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스테로이드나 세포독성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이들 약제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최근 mycophenolate mofetil (MMF)이 치료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구체 질환에서 MMF 치료에 대한 연구들은 대상 질환, 투여 용량과 기간, 추적기간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원발성 사구체 질환에서 MMF 단독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방법** : 2002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신생검으로 사구체질환을 진단 받은 환자 중 원발성 사구체질환으로 MMF를 최소 3개월 이상 투여 받은 26명을 대상으로 원인 질환, MMF 치료 적응증, MMF 투여 후 단백뇨, 신기능, 부작용 등을 조사하 였다.

**결과** : 대상 환자는 남자 16명, 여자 10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50세이었다. 원인 신질환은 막성신염 17례, 최소변화신증 4 례, 초점분절사구체경화증 4례, 막증식성사구체신염 1례이었다. MMF의 적응증으로 스테로이드 부작용 4례, 스테로이드나 세포독성약제 치료에 저항 6례, 사이클로스포린 치료에 저항 8례, 이전 특별한 치료가 없었던 환자가 8례이었다. MMF의 투여량의 중앙값은 일일 1.75 g (1.5-2.0), 치료기간은 평균 6.8개월 (3-12)이었다. MMF 치료 전후 백혈구, 혈색소, 혈 소판 수와 신기능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고, 혈청 알부민은 2.9 g/dL에서 3.3 g/dL로 증가 되었으며 일일 단백뇨는 9.9 g에 서 4.7 g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치료기간 동안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1례에서 신부전이 발생 하였다. 완전관해는 4례 (16%), 부분관해는 11례 (42%)이었고, 관해까지의 기간은 완전관해는 모두 3개월 이내, 부분관해 는 3개월 이내 7례 (64%), 6개월 이내 2례, 12개월 이내 2례이었다. 원인질환에 따른 치료반응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 : 원발성 사구체 질환 환자에서 MMF 투여로 단백뇨가 유의하게 감소 되었으며 약 60%에서 완전 혹은 부분관해를 보 였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